

현대무용 남자 전공자의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지각 특성 분석

김 승 근*

Abstract

A Study on the Attribution Trait to Success or Failure in Performance by Modern Dancer

Kim, Seung-keun (Daej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contributive to successful dance performance by dancers with an aim to discovering which contributive factors are to be utilized by which modern dancers. In this connection specifically difference in the level of relationship of such contributive factors with dancers dependent, success or failure in the past performance of the dancers were studied.

Subjects of this study were randomly selected 448 dancers who belonged to colleges and dancing troupes in Seoul area who are college junior students or above, with a dancing career of 5 years or longer.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level of consciousness of respondents on such contributive factors questionnaires to be filled in by themselves were prepared. Two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One had 12 questions in 4 fields related to success or failure in performance and another one had 29 questions in 6 fields related to measuring level of consciousness on the factors of success or failures of performance.

After measurement collected data were tested by applying t-test which is Subprogram of SPSS, ANOVA and Regression for the purpose of passing judgement on the validity of hypothesis for research.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mean the attribution trait to success or failure in performance between modern dancer and comparative dancer group.

Second, respondents who considered their past performances as successful regarded factors such as efforts to make performance successful, level of difficulties of performance and support acting etc. possess higher level of relationship with success or failure of performance.

Third, factors having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uccess or failure in a performance appeared to be luck, ability, efforts, level of difficulties, colleagues and supporting acts etc.

* 대진대학교 한국무용학과 겸임교수

I. 서론

사람들은 어떤 일의 발단을 동료나 타인에 귀인 하는 경향이 있다(DeCharmes, Carpenter와 Kuperman, 1965). 그러므로, 지각 있는 태도나 동기가 부여되는 정도는 부과된 일에 대한 개인의 귀인결과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다(Atkinson, 1964).

귀인은 수행의 원인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에 있어 그 원인을 추론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그 사람의 내적 상태나 행동 자세를 평가한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개인의 행동은 행위자의 의도, 능력, 노력과 같은 행위자 측의 요인과 과제의 난이도, 분위기와 같은 환경요인이 서로 관계되어 이루어진다(이강헌, 1990).

최근 들어 잠재적 원인의 귀인요소들이 안정성 차원과 인과성 차원으로 분류한 이론이 발표되었으며, 이 이론에 따르면 성취와 관련된 상황에서 성공이나 실패는 일차적으로 능력, 노력, 운, 과제의 난이도의 네 가지 인과요인들에 귀인 된다. 이러한 귀인 요인들 중에서 능력과 노력은 개인적인 특성인 반면 운과 과제의 난이도는 환경적 혹은 외적 특성이다. 또한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불변적인 반면 노력과 운의 정도는 매우 불안정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다(Weiner, Frieze, Kukla, Reed, Rest와 Rosenbaum, 1978). 또한, 내-외 인과성 차원은 수행결과에 영향을 주며, 안정성 차원은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준다. 특히, 노력이나 능력에 영향을 받는 과제의 성공은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반면 미래 수행에는 서로 다른 기대를 나타낸다. 즉, 능력과 관련된 성공은 능력이 안정적 차원이기 때문에 미래의 유사한 수행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지만, 노력과 관련된 성공은 노력이 불안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미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운과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된 수행은 외적 요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신감을 감소시킨다. 또한 안정적 차원의 영향으로 미래 수행에 대한 상이한 효과를 나타낸다. 즉, 안정적 요인인 과제의 난이도는 미래에 유사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노력과 능력에 관련된 실패는 수치심을 자극시킨다. 또한 능력과 같은 안정적 차원과 실패의 관련은 미래에 유사한 실패를 기대하는 반면, 노력과 같은 불안정적 귀인과의 관련은 미래에 성공적 수행을 기대시킨다. 운과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된 실패는 수치심을 감소시킨다.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된 실패는 미래에도 유사한 실패를 기대하며, 운과 관련된 실패는 운에 대한 변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미래에 상이한 수행을 유도한다(Weiner, 1972). 또한 개인이 참여하는 대다수의 활동은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실행되므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서 과거의 경험은 귀인요인을 조사할 때, 중요한 고려점이다(Roberts, 1975).

귀인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대부분의 설문지에서 귀인요인을 능력, 노력, 행운과 난이도 등의 질문들을 구성하고 있다(Roberts, 1977; Iso-Ahola, 1975; Weiner, 1983).

무용공연에 대한 성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면, 공연장의 시설과 홍보, 사회 문화적 의식상태, 시대의 흐름 등의 외적 요인과 무용수 개인의 심리적 특성, 노력과 능력, 단원간의 조직력과 연출력 등의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외적 요인의 변화는 무용 전문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노력이 요구되며 변화도 늦지만 내적 요인의 변화는 단기적이고 즉각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공연에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실행결과가 인과율적 속성 때문에 저해될 수도 있고 향상될 수도 있다고 볼 때에 개인이 어떻게 성공과 실패의 원인들을 평가하느냐는 공연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무용수의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은 무용공연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적 요인이다.

더욱이 전문 무용수의 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어렵고,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된다. 특히,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리허설하는 과정은 무용수행 동기가 없으면 어려운 작업이 된다. 창작은 반복연습이 의한 숙련된 노련한 동작이 아니고 예술에 대한 매 순간마다 솟아 오르는 열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 무용수의 공연작업에서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을 알아보고, 적용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남자 무용수들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동기화 자료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남자 현대 무용수에게 공연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귀인요인을 활용할 것인가를 알아보며,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남자 현대 무용수의 공연성패 귀인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무용수의 공연성패 귀인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무용수의 과거 공연 성패기억이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요인과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은 설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 1) 무용 유형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으로만 구분하였다.
- 2) 피험대상자는 대학생 및 직업무용단 무용수로 공연경력 5년 이상 및 공연회수 5회 이상인 자로 하였다.

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 및 무용단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경력 5년 이상으로 공연회수가 5회 이상인 무용수 448명(남자 현대 무용수; 42명, 비교집단; 406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피험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특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무용경력(년)	9.54 ± 1.87	9.95 ± 2.34
대극장 공연회수(회)	7.24 ± 0.58	7.34 ± 0.87
무용 전공 분야	현대무용(남자; 42명)	현대무용(여자; 118명)
		한국무용(남자; 37명, 여자; 161명)
		발레(남자; 13명, 여자; 77명)
소속	대학; 36명	대학(남자; 42명, 여자; 260명)
	직업 무용단; 6명	직업무용단(남자; 8명, 여자; 94명)

2. 측정요인 및 도구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연성패와 귀인의 요인별 자각 인식 정도를 점수화시키기 위한 설문지는 김정숙(1998)이 작성한 것을 인용하였다. 설문지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공연성패에 관한 4가지 영역의 12개 질문을 작성하였으며,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요인에 자각 인식도를 측정하는 영역은 6개 영역의 29문항이었다. 무작위로 추출된 피험자를 본 연구자가 공연 익일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의도를 설명하고 배부와 회수를 즉석에서 수행하였다.

1) 귀인요인 측정

무용공연에 대한 귀인요인의 구분은 먼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운, 능력, 노력, 난이도, 동료 요인과 보조연출 요인을 첨가하여 6가지로 하였다. 응답방법은 5단계 Likert식을 택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alpha= .6423로 5%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귀인 검사지의 세부적인 영역은 첫째, 운 영역은 ① 종합적인 운, ② 호응이 좋은 관중을 만나는 운, ③ 언론매체나 평론가의 논평의 운, ④ 무용수와 관중의 호흡이 맞는 운, 둘째, 능력 영역은 ① 음악, 조명, 장치, 효과 등의 보조연출자의 능력, ② 단장의 능력, ③ 주연급 무용수의 표현능력, ④ 무용수의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 능력, ⑤ 무용수의 체력, ⑥ 무용수의 실수, 셋째, 노력 영역은 ① 무용단원 모두의 예술적 노력, ② 무용단원 모두의 연구정신, ③ 강도있는 훈련과 빈번한 연습, ④ 무용수 개인의 노력, ⑤ 섭외-홍보-광고 노력, ⑥ 전체적인 노력, 넷째, 난이도 영역은 ① 몇 가지 어려운 예술적 표현동작, ② 주연급 무용수들의 고난도 기술 수행, ③ 표현연기의 난이도, ④ 작품의 난이도, 다섯째, 동료 영역은 ① 종합적인 동료관계, ② 동료 보조 무용수, ③ 보조 무용수들 간의 협연, ④ 무용수, 안무자, 보조연출자 등의 동료, 여섯째, 보조 연출 영역은 ① 의상, ② 효과연출, ③ 조명연출, ④ 무대장치, ⑤ 음악연출 등이다.

2) 무용공연 성패변인 측정

종속변인인 무용공연의 성패여부는 자기진술형의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응답방법은 5단계 Likert식을 택하였다. 신뢰도는 통계적 검증으로 Cronbach alpha= .6732로 유의수준 5%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공연 성패여부의 측정을 위한 세부적 주제는 첫째, 무용공연의 수행속도 측면의 평가항목으로 ① 주어진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할 임무를 성공, ② 짧은 시간에 수행해야 할 동작에서 어려움, ③ 장시간에 걸친 여유 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으로 나누었고, 둘째, 무용공연의 수행정확도 측면의 평가항목으로 ① 동작의 정확도, ② 동작의 섬세성과 유연성, ③ 동료와의 협연동작에서 정확한 동작으로 나누었고, 셋째, 무용공연의 수행자세 측면의 평가항목으로 ① 자세의 우수성, ② 자세의 불량과 에너지 소모 정도, ③ 자세의 불안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나누었고, 넷째, 무용공연의 수행적응력 측면의 평가항목으로 ① 공연에서 각본대로 적응하는 문제, ② 순간적 제치와 공연전체의 연결성, ③ 동료의 실수와 나의 역할완수로 나누었다.

3. 자료처리 방법

자료처리는 SPSSx의 Sub-program을 이용하였다. 각 변인별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Condescriptiv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무용공연 성패에 대한 인식도와 공연성패에 대한 여섯 가지 귀인요인별 인식도에서 무용수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와 ANOVA 및 Student Newman-Keuls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결과

1) 남자 현대무용수의 귀인특성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요인에서 남자 현대무용수 집단의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ANOVA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연성패 자각인식 점수에서 두 집단(남자 현대무용수 집단; $2.32 \pm .38$, 비교집단; $2.30 \pm .40$)간의 변량차 검증값 $F = .1998(df = 446, p > .05)$ 은 의미가 없었다. 운 요인에 대한 귀인 점수에서 두 집단(남자 현대무용수 집단; $2.99 \pm .53$, 비교집단; $3.00 \pm .55$)간의 변량차 검증값 $F = .2846(df = 446, p > .05)$ 은 의미가 없었다. 능력 요인에 대한 귀인점수에서 두 집단(남자 현대무용수 집단; $2.35 \pm .50$, 비교집단; $2.34 \pm .52$)간의 변량차 검증값 $F = .9857(df = 446, p > .05)$ 은 의미가 없었다. 노력 요인에 대한 귀인점수에서 두 집단(남자 현대무용수 집단; $2.36 \pm .65$, 비교집단; $2.41 \pm .66$)간의 변량차 검증값 $F = .3323(df = 446, p > .05)$ 은 의미가 없었다. 난이도 요인에 대한 귀인점수에서 두 집단(남자 현대무용수 집단; $2.32 \pm .60$, 비교집단; $2.39 \pm .58$)간의 변량차 검증값 $F = .3368(df = 446, p > .05)$ 은 의미가 없었다. 동료 요인에 대한 귀인점수에서 두 집단(남자 현대무용수 집단; $2.52 \pm .58$, 비교집단; $2.60 \pm .60$)간의 변량차 검증값 $F = .4983(df = 446, p > .05)$ 은 의미가 없었다. 보조연출 요인에 대한 귀인점수에서 두 집단(남자 현대무용수 집단; $2.37 \pm .58$, 비교집단; $2.35 \pm .60$)간의 변량차 검증값 $F = .4952(df = 446, p > .05)$ 는 의미가 없었다.

즉, 무용 공연 성패에 대한 자각 인식도, 운 귀인, 능력 귀인, 노력 귀인, 난이도 귀인, 동료 귀인, 보조 연출 귀인 등의 정도는 남자 현대무용수 집단과 비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무용수의 공연성패 귀인특성

무용수가 공연의 성패에 대한 자각인식 점수와 공연성패에 대한 6가지 귀인요인별 인식 점수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pearson's correlation으로 검증한 결과에서 운 요인($r = -.1327, p < .05$), 능력 요인($r = .0941, p < .05$), 노력 요인($r = .2587, p < .05$), 동료 요인($r = .1287, p < .05$), 보조연출 요인($r = .1582, p < .05$)의 상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이도 요인($r = -.0099, p > .05$)은 공연 성공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 요인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나머지 4가지 요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공연 성패에 대한 운 귀인 점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능력 귀인, 노력 귀인, 동료 귀인, 보조 연출 귀인 등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귀인요인은 어떤 요인인지를 알아보고자, Regression으로 검증한 결과에서 중다상관계수 $R = .34758$ (significance $F < .05$)은 유의하였으며, 설명계수는 14.24%로 나타났다. 또한, 노력 요인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beta = .31002, p < .05$)를 보였고, 운 요인이 두번째로 높은 상관관계($\beta = -.23101, p < .05$)를 보였고, 난이도 요인이 세번째로 높은 상관관계($\beta = -.15779, p < .05$)를 보였고, 보조 연출 요인($\beta = .09256, p > .05$), 동료 요인($\beta = .04258, p > .05$), 능력요인($\beta = .02004, p > .05$) 등은 영향력의 차이가 없었다. 즉, 6가지 귀인요인들 중에서 노력 귀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둘째는 운 귀인, 셋째는 난이도 귀인이었으며, 네 번째는 능력, 동료, 보조 연출 등으로 세가지 요인간에는 영향력의 차이가 없었다.

3) 공연성패 기억별 무용공연 결과에 대한 귀인특성

무용수의 과거 공연의 성패기억에 따라 공연성패에 대한 자각인식 점수와 공연성패에 대한 6가지 귀인요인별 인식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에서 첫째, 공연 성패 자각인식 점수에 대한 과거공연 성패기억(성공기억 집단; $2.41 \pm .41$, 실패기억 집단; $2.10 \pm .41$)간 변량차 검증값 $F = 5.2314$ ($df = 446, p < .05$)는 유의하였다. 즉, 공연성패에 대한 자각인식 점수는 과거 공연에 대한 성공기억을 가진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연 성패에 대한 운요인 귀인점수에서 과거공연 성패기억(성공기억 집단; $1.82 \pm .55$, 실패기억 집단; $2.19 \pm .60$)간 변량차 검증값 $F = 5.4214$ ($df = 446, p < .05$)는 유의하였다. 즉, 공연성패에 대한 운 요인 귀인점수는 과거 공연에 대한 실패기억을 가진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연

성패에 대한 능력요인 귀인점수에서 과거공연 성패기억(성공기억 집단; $2.44 \pm .51$, 실패기억 집단; $2.17 \pm .49$)간 변량차 검증값 $F= 3.1247(df= 446, p<.05)$ 는 유의하였다. 즉, 공연성패에 대한 능력 요인 귀인점수는 과거 공연에 대한 성공기억을 가진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공연 성패에 대한 노력요인 귀인점수에서 과거공연 성패기억(성공기억 집단; $2.78 \pm .56$, 실패기억 집단; $2.35 \pm .56$)간 변량차 검증값 $F= 5.8746(df= 446, p<.05)$ 는 유의하였다. 즉, 공연성패에 대한 노력 요인 귀인점수는 과거 공연에 대한 성공기억을 가진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공연 성패에 대한 난이도 요인 귀인점수에서 과거공연 성패기억(성공기억 집단; $2.39 \pm .60$, 실패기억 집단; $2.07 \pm .59$)간 변량차 검증값 $F= 6.4746(df= 446, p<.05)$ 는 유의하였다. 즉, 공연성패에 대한 난이도 요인 귀인점수는 과거 공연에 대한 성공기억을 가진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공연 성패에 대한 동료 요인 귀인점수에서 과거공연 성패기억(성공기억 집단; $2.47 \pm .59$, 실패기억 집단; $2.50 \pm .56$)간 변량차 검증값 $F= 1.9347(df= 446, p>.05)$ 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공연성패에 대한 동료 요인 귀인점수는 과거 공연에 대한 성공기억을 가진 집단과 실패기억을 가진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일곱째, 공연 성패에 대한 보조연출 요인 귀인점수에서 과거공연 성패기억(성공기억 집단; $2.44 \pm .63$, 실패기억 집단; $2.08 \pm .65$)간 변량차 검증값 $F= 5.4268(df= 446, p<.05)$ 는 유의하였다. 즉, 공연성패에 대한 보조연출 요인 귀인점수는 과거 공연에 대한 성공기억을 가진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2. 논의

1) 남자 현대무용수의 귀인특성

다른 무용수에 비교하여 남자 현대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무용수의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유형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자 현대무용수들은 다른 무용전공의 무용수와 동일한 귀인유형을 가지고 있다. 공연성패나 성패에 대한 구체적인 귀인 형태는 무용수의 전공 유형에 따른 차이를 구명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무용수의 전공유형과 귀인유형이 관계없는 것은 첫째, 무용수의 전공유형 구분은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성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모든 무용전공자들은 발레를 기초로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을 병행하여 교육받기 때문 세 가지 무용전공 영역을 모두 섭렵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응답한 무용수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무용수들이기 때문에 무용의 전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특별하게 자기 전공분야를 주장하여 특화시키지 않고 있음

알 수 있다. 이렇게 무용예술을 폭 넓은 창작예술로 공부하는 것은 장점으로 바람직 하지만, 자기의 전문성 즉, 특화시키지 못한다면, 다양성 속에서 독창성을 추구하는 예술 본연의 본질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현대무용은 다양한 무용예술 속에서 그 독특한 장르와 특성을 살려야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유영역에 대한 특화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무용수의 공연성패 귀인특성

무용수의 공연성패 인식도에 대하여 운 귀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능력 귀인, 노력 귀인, 동료 귀인, 보조 연출 귀인 등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공연성패에 대한 6가지 귀인요인의 영향력 비교에서 노력 귀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둘째는 운 귀인, 셋째는 난이도 귀인이었으며, 나머지 귀인(능력, 동료, 보조 연출)들은 영향력의 차이가 없었다.

Weiner(1970, 1972)는 능력귀인보다 노력귀인이 정서표현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본 반면에, Nicholls(1975)은 노력귀인보다 능력귀인이 정서유발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Sohn(1977)도 Weiner(1970, 1972)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면서, 능력귀인은 도덕적으로 중립적 정서인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 노력귀인은 도덕적 정서인 자부심이나 수치심에 대하여 더욱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용수들은 공연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자부심이 큰 반면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하여 수치심이 강하여 노력귀인이 공연성패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력을 적게 했다는 사실이 수치심을 증가시킨다는 주장(Weiner와 Kukla, 1970; Brown와 Weiner, 1984)과 반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실패에 대한 수치심을 증가시킨다는 주장(Fontaine, 1975)을 고려할 때에 무용수가 공연성패와 관련지어 노력에 귀인 지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 이상의 무용수들이나 공연성패 인식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귀인이 노력요인이라는 것은 무용수들이 항상 배우는 자세로 무용공연에 임하고 연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 운 귀인은 교육적 관점에서는 주의해야 할 학습의 포기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동기화 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용수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기회와 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공연의 성공은 공연연습 기간에 자기를 포함한 모든 무용수들과 연출가 그리고 보조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과 상관이 높은 것을 주지시켜야 하

겠다. 그리고 자기 역할에 노력하고 능력을 키워 향상된 기량만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인식시켜서 동료나 보조 연출 등의 외적 원인에 귀인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3) 공연성패 기억별 무용공연 결과에 대한 귀인특성

일반적으로 현재의 행동의 결과와 과거 행동의 결과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원인을 불안정한 귀인 요소인 노력요인이나 운 요인의 탓으로 돌린다(Freize와 Snyder, 1980; Spink, 1977, 1978). 또한, 과거의 경험과 성패가 일치하면 할수록 안정된 귀인요소(능력, 과제의 난이도)의 탓으로 돌린다(김종선외, 1986). 또한, 성취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자기의 성취결과를 노력에 가장 많이 귀인하는 반면, 중간 정도의 성취 피험자는 양극단의 성취집단에 비해 운에 더 많이 귀인 함으로써, 성취수준에 따라 성취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양식이 다름이 밝혀졌다(Kukla, 1972).

본 연구에서 무용수의 과거 공연의 성공기억이 있는 집단이 공연성공 인식점수, 능력요인 귀인점수, 노력요인 귀인점수, 난이도 요인 귀인점수, 보조연출 귀인점수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연성패에 대한 운 요인 귀인점수는 과거 공연에 대한 실패기억을 가진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연 성패에 대한 동료 요인 귀인점수에서 과거공연 성패기억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과거 성공한 경험이 많은 무용수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요인에서도 성공기억을 가진 무용수들이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패귀인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연구는 체육, 스포츠, 무용 등에서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심리학자들의 성패요인과 귀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다. 특히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을 중요한 성패와 관련된 귀인요소로 다루고 있다(오혜영, 1981; 황정규, 1982; 이해경, 1984). 특히, 박영신(1986)은 중학교 1년 동안 누적된 전과목 학교성적을 기초로 누가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성공-운($p < .01$), 성공-능력($p < .05$), 실패-능력($p < .01$) 귀인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의 경우에서, Roberts(1975)는 어린이 야구경기에서 패한 팀의 선수들은 승리한 팀의 선수들보다 행운을 경기결과에 대한 귀인요인으로 더 높게 자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승리한 팀의 선수들은 패한 팀의 선수들보다 그들 자신에게 더 큰 재능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본래 우수한 팀의 선수는 개인의 노력을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Iso-Ahola(1975)는 유사한 연구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한 어린이 야구팀의 선수들의 귀인요인을 다루었는데,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자기 노력이 재능, 일, 행운보다 좀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경기에서 패배의 귀인은 난이도와 행운 등의 외적요인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Scanlan(1977)은 패배를 외적 원인으로 돌리는 사람은 자기방어의 한 형태를 보이는 것임을 지적하고, 결과에 대한 원인에 자신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며,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때, 자존심을 구하는 것같고, 패배시 자기노력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경쟁의 결과에 대한 주된 귀인에 대한 참여자의 자기인식 평가는 이전의 유사연구들과 관련하여 반대임을 주장하고, 승리한 팀의 피험자들은 운화주의자나 패배를 당한 피험자보다 더 높은 정도로 내적인 요소에 경기결과의 원인을 찾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Gould와 Roberts(1977)는 피험자들이 승리에 대해서는 내적인 귀인요인을 인식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외적인 귀인요인을 인식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근거임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남자 현대무용수들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기화 자료로 어떠한 귀인요인을 활용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연구의 대상은 대학교 이상 무용단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경력 5년 이상으로 공연회수가 5회 이상인 무용수 448명(남자 현대무용수; 46명, 비교집단; 402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무용수의 자각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 진술형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SPSSx의 Sub-program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무용공연 결과에 대한 성패 인식도와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요인별 점수에서 남자 현대 무용집단의 특성은 없었다.

둘째, 공연성패에 대한 귀인의 상관에서 운 귀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능력 귀인, 노력 귀인, 동료 귀인, 보조 연출 귀인 등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난이도 귀인은 상관이 없었다.

셋째, 공연성패에 대하여 노력 귀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넷째, 과거 공연에 대한 성공기억을 가진 무용수들이 공연의 성공인식도, 능력요인 귀인 점수, 노력요인 귀인점수, 난이도 요인 귀인점수, 보조연출 귀인점수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운 요인 귀인점수는 과거 공연에 대한 실패기억을 가진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 요인 귀인점수는 과거공연 성패기억간에 차이가 없었다.

참고문헌

- 김정숙(1998), “대학생 무용수의 무용공연결과 분석과 귀인변인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중선, 고흥환, 김기웅(1986), 스포츠심리학 개론, 서울 : 선일문화사.
- 오혜영(1981), “성취결과에 대한 인과적 귀속과정과 자아개념과의 상호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강현(1990), 스포츠 심리학, 서울 : 민음사.
- 이혜경(1983), “학업성취상황에서 아동의 성패 귀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영신(1986), “인지발달 수준에 따른 성패귀인과 과학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 한국 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4(2), 77-94.
- 황정규(1982), 대학환경의 사회 심리적 특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Atkinson, J. W.(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New York : D. Van Nostrand.
- Brown, J., & Weiner, B.(1984), Affective consequences of ability versus effort ascriptions : Controversies, resolutions, and quandar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1), 146-158.
- DeCharmes, R., Carpenter, V., and Kuperman, A.(1965), “The origin-pawn variable in person perception”, 28, 241-258.
- Frieze, I. H., & Snyder, H. N.(1980), Children’s beliefs about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in school setting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 182-196.
- Fontaine, G.(1975), “Causal attribution in simulated versus real situations: When are people logical, When are they n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021-1029.
- Gould, D., and Roberts, G.C.(1977), “Task enjoyment and task attribution following outcome gain of loss”, *Proceedings fo the NCPEAN/NAPECW Antional Conferenc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ircle Publications Services, Chicago, 373-374.
- Iso-Ahola, S.(1975), “A test of the attribution theory of success and failure with little league baseball players”, *MOUVEMENT*, Proceedings of the 7th Canadian Symposium of Motor Learning and Sport Psychology, 323-339, October.
- Kukla, A.(1972), Attribution determinants of achievement-relat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8*(4), 1048-1053.
- Nicholls, J. G.(1975), Causal attributions and other achievement related cognitions : Effects of task outcome, attainment value and sex.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1*, 379-389.

- Roberts, G. C.(1975), "Win-Loss causal attributions of little league players" *MOVEMENT*, Proceedings of the 7th Canadian Symposium on Motor Learning and Sport Psychology, 315-322, October.
- Scanlon, T. K.(1977), "The effects if success-failure of the perception of threat in a competitive situation", *Research Quarterly*, 48, 144-153, March.
- Sohn, D.(1977), Affect-generating powers of effort and ability self attributions of academic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42-54.
- Spink, K.S.(1977), *Attribution and athlet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 Spink, K.S.(1978), Win-loss causal attributions of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s*, 3, 195-201.
- Weiner, B., & Kukla, A.(1970),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5, 1-20.
- Weiner, B.(1972), *Theories of motivation: From mechanism to cognition*, Chicago, Rand McNally Publishing Co., 310-388.
- Weiner, B., et. al.(1978), Achievement strivings. In J. E. Exner, & H. London(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1-36.
- Weiner, B.(1983), Some methodological pitfalls in empirical examination of Weiner's critique of attribution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530-543.